

KMI 북방물류리포트

VOL.207
MAR 04 2022

발간년월 2022년 3월 4일(통권 제207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김종덕 총괄 이주호 감수 최재선 담당 김엄지·유지원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TEL +82-51-797-4776 FAX +82-51-797-4659



주요 동향

- 러-우크라이나 사태로 해운분야 타격 심화 예상
- 러-인도, 해양물류 협력으로 '남과 북을 가깝게'
- 극동 연방 관구 물동량 성장, 러 전체 평균 이하
- 우즈벡·러시아, 합작투자로 물류 회사 설립한다.

주요 통계

- 2022년 1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건·액체화물)
 - 2021년 11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
 - 2021년 11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입 규모
- * 러시아 극동지역 세관 홈페이지 접속 불가로 업데이트하지 못하였습니다.
러시아 세관 홈페이지가 복구 되는대로 게재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요 동향



러-우크라이나 사태로 해운 분야 타격 심화

그림. 미국의 제재 목록에 포함된 러시아 국영선사 FESCO의 'FESCO 마가단' 선박



자료: <http://morvesti.ru/news/1679/94172/>

■ 러-우크라 사태, 해운·물류 분야에 문제 낳아

- 2021년 12월부터 시작하여 지난 2월 24일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격화된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사태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고강도 러시아 제재가 시작되었음
- 제재 조치의 영향으로 러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 다양한 해운사들이 해상 운송에 적지 않은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음

■ 미국 대러제재 목록에 러시아 선박 5척 포함^{a)b)c)}

- 러시아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선박 중 러시아 국영선사 페스코(FESCO)의 컨테이너선 2척을 포함, 총 5척의 선박이 미국의 대러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해당 선박은 발틱 리더

(Baltic Leader)선, 유조선 린다(Linda) 및 페가스(Pegas), 페스코(FESCO) 소유 컨테이너선 ‘FESCO 마가단(Magadan)’과 ‘FESCO 모네론(Moneron)’호인 것으로 밝혀짐

- FESCO 소유 컨테이너선 ‘FESCO 마가단(Magadan)’과 ‘FESCO 모네론(Moneron)’의 경우 자금 조달 세부 사항 및 임대인 지위로 인해 미국 제재 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린 임대업 진행 회사 PSB Leasing LLC의 자산으로 파악되어 미국의 대러제재를 받게 되었음. 이에 따라, FESCO는 PSB Leasing LLC와의 계약 해지 등의 절차를 시작함
- FESCO 사는 해당 선박들이 모두 러시아 국내에서만 운항 중인 선박임을 강조하며 제재로 인한 영향은 없을 것이라 언급했고, 해당 선박 2척을 제외한 다른 FESCO 소유 선박은 제재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함
- 아울러, FESCO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현대적인 물류 솔루션을 러시아 및 유라시아 고객사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모든 국제 및 러시아의 법을 지속적으로 준수해왔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며 화물 운송을 이전과 다름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함
- 한편, 2월 27일 서방 G7 국가들의 SWIFT 시스템에서 러시아 일부 은행을 배제하는 금융제재 조치 발표와 관련하여, 페스코는 제재를 받지 않은 러시아 은행으로의 송금 및 중국 위안화를 통한 대금 지불 등 결제를 위한 대체 방안을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그림. 덴마크 해운기업 머스크(Maersk)사(社) 선박



자료: <http://www.morvesti.ru/news/1679/94273/>

■ 해운사, 러시아 화물 수송 중단·거부…자동차 부품 등 제품 공급 차질^{d)e)}

- 덴마크 해운 최대기업인 머스크(Maersk) 사는 우크라이나행 화물운송을 중단했으며, 2월 24일부터 우크라이나 항만으로의 선박 입항 또한 금지함. 3월 1일에는 러시아행 및 러시아발 해상·육로 운송의 새로운 주문을 더 이상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함
 - * 업계 전문가들의 정보에 따르면, 머스크사는 상트페테르부르크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20%를 점유하고 있음
- 이 같은 결정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작전이 시작되고, 이로 인한 EU의 대러제재가 시작된 후 내려지게 되었으나, 머스크사는 식료품·의약품 및 인도주의적 지원 물품에는 적용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머스크사와 스위스 해운 기업 MSCMediterranean Shipping Company, MSC)사는 가까운 시일 내에 운송 조건 등이 변경될 수 있다고 고객사에 알림
- 미국 해운사 쉽코(Shipco)의 경우, 러시아·벨라루스·우크라이나 관련 운송 예약을 중단하였으며, 유럽의 거대 선사 하팍로이드(Hapag-Lloyd)사는 2월 중순 경 흑해와 아조프해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수역을 군사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규정하여, 선사의 몇몇 컨테이너 운송 라인 주문을 전면적으로 거절하고 있음. 컨테이너 라인을 제외한 다른 운송의 경우 우크라이나와 관계된 운송 예약만 중단하고 있음
- 물류기업 빅 트랜스(VIG Trans)사(社)의 이고르 레벨스키(Irog Rebelskiy) 창업자는 이 같은 현상이 정치적 이유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안전에 관한 문제와 더 연관이 깊다고 설명함
- 그 밖에 여러 선박들은 러시아 지역이 위험하다는 선장의 판단에 따라 러시아 항만 기항을 중단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 전개는 자동차 시장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러시아 항만으로의 우크라이나 선원들의 기항을 거부함에 따라 자동차 부품 공급망에 차질이 생겼으며, 이 같은 공급 차질 문제는 건축자재를 포함한 다른 부문에서도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유지원 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참고자료

- a) <http://www.morvesti.ru/news/1679/94166/> (2022.3.2. 검색)
- b) <http://morvesti.ru/news/1679/94172/> (2022.3.2. 검색)
- c) <http://www.morvesti.ru/news/1679/94242/> (2022.3.2. 검색)
- d) <http://www.morvesti.ru/news/1679/94273/> (2022.3.2. 검색)
- e) <http://www.morvesti.ru/news/1679/94266/> (2022.3.2. 검색)

러-인도, 해양물류 협력으로 ‘남과 북을 가깝게’

그림. 회담장에 입장하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자료: <https://rg.ru/2022/01/25/transportnye-koridory-vyvedut-sotrudnichestvo-rf-i-indii-na-novyj-uroven.html>

■ 러시아 및 인도 두 나라, 뉴델리 정상회담에서 남북 운송회랑문제 집중 논의

-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인도 모디 총리는 지난해 말 뉴델리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 및 국제 남북 운송 회랑(North-South International Transport Corridor)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음
- 국제 남북운송회랑은 철도, 도로, 해운을 통해 페르시아만과 카스피해를 인도양과 연결하는 총 7,200km 규모의 프로젝트임. 완성될 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기존의 해운 루트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남북회랑 사업은 2000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최된 제2차 국제 유럽 아시아 운수 컨퍼런스에서 러시아, 이란, 인도 3개국의 정부 간 협력 체결에 법적인 기반을 두고 있음. 협력사업이 공개된 이래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터키,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불가리아(오퍼버)도 사업에 관심을 보이며 합류했음. 러시아 철도공사 로지스틱(RZD Logistic)은 인도 국영물류기업인 CONCOR와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음
- 이와 같은 실무진 협상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뉴델리에서 개최된 러-인도 정상회담에서 러시아는 인도와 가까운 이란 차바하르(Chabahar) 항 개발에 대한 인도의 입장을 지지했음. 마라트 후스눌린 러시아 부총리는 2024년 경 국제운송회랑이 성사될 것으로 예측했음

■ 남북 운송회랑 프로젝트와 함께 블라디보스토크-첸나이 해운 루트도 언급

- 블라디보스토크-첸나이 해운 루트는 인도와 극동지역을 직접 연결하는 항로로, 물류 처리 속도를 24일로 단축시킬 수 있음. 기존 인도-러시아 극동 간 무역 수출입은 유럽 경유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약 40일이 소요된 바 있음
- 양국 정상은 극동지역에서 인도 자본 투자 유치를 통한 농업, 임업, 제약업 및 상품 수출 활성화를 통한 공동 이익 창출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였음

■ 정상회담에서 모디 총리는 러시아의 북극 사업 협력 참여에도 관심을 표시

- 인도는 지속적으로 북극 사업 참여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온 바 있음. 우선, 학술적인 성격이 있는데, 인도 또한 히말라야 빙하가 녹으면서 하천의 흐름 및 계절풍 변화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임. 이 때문에 러시아과학아카데미는 인도지구과학부와 공동으로 북극 기후 연구를 수행한 바 있음
- 두 번째로, 인도는 북극항로 및 카라 해-프로비데니아(Provideniya) 만 5,600km 구간 개발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보여왔음. 북극 항로의 개발은 기존 수에즈 운하 통과에 소요되는 시간을 40%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물류 및 연료 비용을 절감하고 정치적인 영향력을 강화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모디 총리는 인도가 우주개발을 추진하는데, 러시아의 도움을 언급하며, 인도 또한 북극항로 개발에서 주요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음. 현재 인도 마자곤 조선소(Mazagon Dock Shipbuilders)는 러시아 즈베즈다(Zvezda) 조선소와 협력하고 있음
- 마지막으로 인도는 천연가스 개발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음. 2018년부터 러시아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으며, 가즈프롬과 인도 GAIL 사의 계약체결로 2022년에는 가스수입량이 250만 입방미터에 달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또한 러시아 노바텍(NOVATEK), 인도 페트로넬(Petronet LNG)와 비데쉬(ONGC Videsh)의 북극 LNG-2 컨소시엄에 9.9% 규모 지분 참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김엄지 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조용성,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학교 박사과정

(mirinae2929@gmail.com)

참고자료

- a) <https://rg.ru/2022/01/25/transportnye-koridory-vyvedut-sotrudnichestvo-rf-i-indii-na-novyy-uroven.html>(2022.1.25. 검색)

극동연방관구 물동량 성장, 러시아 전체 평균 이하

■ 환적량이 전년 대비 0.5% 상승했으나 10년 만에 최저치 기록, 러시아 전체 환적량 2% 이하 수치임

- 이 같은 수치는 2019년 3/4분기 연해주 지역 항만에서 처리한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을 합산한 것으로 러시아 교통부가 직접 물동량 관리를 하면서 물동량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네벨스코이 국립해양대학교 산하 해운 및 광역 물류연구센터와 리서치 회사(JSC FEMRI)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물동량에서 수출 부문은 감소하고 있는데, 품목별 액체화물의 경우 2020년도 수치에 머무르고 있고, 산적화물 및 화차운송의 경우 구리 수출 증가에 힘입어 소규모 상승을 기록했음. 금속화물 환적의 경우 2019년도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특히 임산물 수출이 16% 감소했음. 반면, 러시아 항구를 통한 상품 수입은 33% 상승하였음
- 이는 최근 사할린-1 석유가스 생산플랫폼의 현대화 작업 및 사할린-2 석유 파이프라인의 데 카스트리(De-Kastri) 터미널 연결 작업으로 인한 생산 중단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석유 수출 환적은 12년 만에 최고 기록을 냈는데, 코즈미노(Kozmino) 항에서 처리한 물량은 2020년 수치보다 6.7%가 상승한 3,510만 톤을 기록했음. 반면 석탄은 5년 만에 극동 지역 물동량 상승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는 지역 내 고질적인 운송 기반시설 부족과 항만에 접근하는 철도의 과밀화를 들 수 있음
- 그럼에도 사하 공화국에서 생산된 석탄을 우선적으로 수출하는 하바롭스크 소재 바니노트랜스우골(VaninoTransugol)사는 12배나 상승한 740만 톤이 석탄 환적률을 보였고, 축치자치구의 베린고프스키(Veringovsky)와 사할린 네벨스크(Nevelsk) 등 과밀화된 내륙 철도와 연계되지 않은 항구에서도 환적률이 늘어났음

■ 환적률이 낮은 것은 컨테이너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한 지역 항만 시설의 인프라 부족과도 관련되어 있음

- 우선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다양한 제한 조치 및 봉쇄를 배경으로, 한 곳에서 항만 창고시설의 화물 적체가 발생하는 동안 다른 곳에서 상품 및 항만시설 부족 현상이 잇달아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 또한 태평양 항로를 활용한 물류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블라디보스토크 항과 보스토치니 항으로 접근할 수 있는 철도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임. 때문에 이 같은 불균형 상태에서 트레일러를 통한 화물 운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위험도가 낮은 화물의 경우 컨테이너에서 부

분적으로 개방화차로 운송되는 경향도 있음

■ 성장을 저하 및 과밀화로 인한 화물처리 지연에도 주요 항만운영기관 및 기업은 시설의 확충 노력 경주

- 2006년 이후 1번 접안시설에 일반화물과 컨테이너를 환적하지 않고 있는 보스토치니 항은 지난해 150만 톤의 금속과 컨테이너 화물 400TEU 이상 처리를 달성하면서 곧 있을 극동 지역 “항만시설 현대화의 파도”에 올라탔다고 발표하였음. 지역 물동량 비중의 36.5%를 차지하는 블라디보스토크 항도 컨테이너 환적량을 늘리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음
- 나훗카 어항 및 무역항, 바니노 무역항 및 블라디보스토크의 다른 접안시설들도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갔지만, 외국 수입화물 또한 같은 접안시설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연안 운송에 문제가 발생한 바 있음. 이와 같은 결함으로 북극항로 운송에 차질이 빚어진 바 있음. 게다가 북극항로의 얼음 수위가 예상보다 일찍 상승함에 따라 북극지역 항만에서 선박 출항을 줄인 요인도 있었음. 그 외에도 2021년에는 러시아 내륙지역으로의 수산물 환적량이 증가한 바 있고, 팬더믹으로 인한 중국으로의 공급량 감소 또한 관측된 바 있음
- 철도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계 각층은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선 러시아 교통부는 업자들이 환적과 대외무역에만 치중하여 연안 운송을 등한시하지 않도록 “공공 복리차원에서 필요한 화물” 운송에 우선권을 두는 항만법 개정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아르카디 코로스텔레프(Arkady Korostelev) FESCO 운수그룹 회장은 카보타지(연안) 노선에 필요한 선박을 더 건조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음.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부족한 항만에 접근하는 철도 인프라를 더욱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김엄지 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조용성,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학교 박사과정
(mirinae2929@gmail.com)

참고자료

a) <https://rg.ru/2022/02/10/reg-dfo/pochemu-tempy-rosta-gruzooborota-portov-dfo-otstali-ot-obshcherossijskih.html>(2022.2.10. 검색)

우즈벡-러시아, 합작투자로 물류 회사 설립

그림. 중앙아시아로 향하는 러시아 화물철도



자료: <https://podrobno.uz/cat/economic/uzbekistan-i-rossiya-sozdali-logisticheskuyu-kompaniyu-dlya-uvlicheniya-zhelez-nodorozhnykh-gruzoper/>

■ 러 철도청 자회사-우즈벡 물류회사, 우즈베키스탄에 합작투자회사 설립^{a)}

- 러시아 철도청 자회사인 러시아 철도 로지스틱스(RZD Logistics)와 우즈베키스탄 물류 회사 UTI 트랜짓사(社)는 합작투자회사 'RZDL Transservice Group'을 우즈베키스탄에 설립할 예정이다
- 해당 합작투자회사는 △모스크바~타슈켄트~모스크바 루트, △중국발 카자흐스탄 경유 우즈베키스탄행 운송,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 운송 루트 및 모스크바~타슈켄트~두산베(타지키스탄 수도) 루트로의 고객 유치에 힘쓰는 한편, 중국발 아프가니스탄 및 파키스탄행 신 운송 회랑 개발에도 참여할 계획임
- 러·우즈벡 합작투자회사를 통해 RZD Logistics는 △모스크바 지역 물류 터미널에 화물 유입을 보장하고, △러시아 및 카자흐스탄 역내의 운송 루트 운임료와 서비스를 담당하는 한편, △철도 운송을 위한 대형화차 및 자동화 냉동 컨테이너를 제공할 방침임

- UTI 트랜짓은 우즈베키스탄에서 RZD Logistics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으로, 향후 RZDL Transservice Group의 물류 서비스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러·우즈벡 양측의 협의로 이루어질 예정임

■ 합작 투자회사 최종 목표는 러, 중, 중앙아 간 화물 운송 기반 확대

- 합작 투자회사는 활동 초기 첫 번째 단계로 모스크바~타슈켄트~모스크바 운송 루트에 정기적으로 40FEU 자동화 냉동 컨테이너 화물의 월 2회 시험운송 서비스를 제공하여 러시아~우즈베키스탄 간 농산물 수출입 화물 육로 수송을 진행할 것임
- 2022년부터는 러시아발 우즈베키스탄행 유로 트럭을 1주에 최대 5대 운행하고, 우즈베키스탄발 러시아행의 경우 1주에 최대 7대 운행할 수 있도록 시도할 계획임
- 이 회사는 궁극적으로 러시아, 중국 및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국가 사이의 농산물 등 기타 제품 철도 및 육로 운송을 위한 화물 기반을 확대하고자 함

유지원 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참고자료

- a) <https://podrobno.uz/cat/economic/uzbekistan-i-rossiya-sozdali-logisticheskuyu-kompaniyu-dlya-uvelicheniya-zheleznodorozhnykh-gruzoper/> (2022.2.24. 검색)



주요 통계



표. 2022년 1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건화물 및 액체화물)

(단위: 백만 톤, %)

수역*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2020/2021 증감율
극동지역	10.9(+5.0%)	7.0(+12.0%)	17.9	+7.6%
북극해	2,2(+12.6%)	6,3(+8.7%)	8,5	+9.7%
발트해	9,1(-3.9%)	13,0(+12.2%)	22,1	+5.0%
아조프-흑해	8,4(+3.0%)	12,0(+28.6%)	20,4	+16,0%
카스피해	0.2(-18.9%)	0.3(-38.9%)	0.5	-31.4%
합계	30.8(+2.0%)	38.6(+15.5%)	69.4	+9.1%

* 주: 극동해역: 블라디보스톡, 자루비노, 올가, 포시에트,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소비츠키야가반, 데-카스트리스, 네벨스크, 홀름스크, 프리고로드노예, 마가단,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

북극해: 무르만스크, 칸달라크샤, 나리얀마르, 두딘카, 아르한겔스크, 오네가, 바란데이, 페벡, 사베타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브보스크, 비소츠크, 우스트-루가, 칼리닌그라드

아조프-흑해: 노보로시스크, 겔렌지크, 투압세, 타간로크, 아조프, 로스토프 나 도누, 다망, 템류크, 카프카즈

카스피해: 아스트라한, 올라, 마하치칼라

** 주: 누적 물동량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증감율

유지원 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참고자료

a) [https://portnews.ru/news/325191/\(2022.3.4. 검색\)](https://portnews.ru/news/325191/(2022.3.4. 검색))

표. 2021년 11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

(단위: 천 달러)

EAEU 코드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01-24	식료품 및 원자재	488,113.1	58,574.3	2,160.9	3,514.4	490,274	62,088.7
25-27	광물 제품	631,154.4	24,174.4	40,838	53,606.2	671,992.3	77,780.5
27	연료 및 에너지 제품	497,367.4	20,609.1	511	0.1	497,878.4	20,609.2
28-40	생고무 화학 제품	4,374	79,626.6	1,178.4	870.8	5,552.4	80,497.6
41-43	가죽원료모 피 제품	8.6	2,080.9	9.1	200.9	17.7	2,281.8
44-49	목재 및 펄프, 종이 제품	90,615	10,273.9	415	269.5	91,030	10,543.4
50-67	섬유·섬유제 품 및 신발	399.6	48,443.3	65.7	1,446.8	465.2	49,890.1
72-83	금속 및 금속 제품	56,410.9	80,556.7	2,000.8	5,604.8	58,411.6	86,161.4
84-90	기계류	112,094.9	564,415.5	6,905.6	6,888.9	119,000.5	571,304.3
68-71, 91-97	기타	313,063.1	63,036.7	47,434.9	498.9	360,498	63,535.7
	합계	1,696,233.6	931,182.4	101,008.4	72,901.3	1,797,241.9	1,004,083.7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유지원 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참고자료

a) [https://dvtu.customs.gov.ru/statistic/2021-god/operativnaya-informacziya\(2022.2.9. 검색\)](https://dvtu.customs.gov.ru/statistic/2021-god/operativnaya-informacziya(2022.2.9. 검색))

표. 2021년 11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입 규모

(단위: 톤, 천 달러)

EAEU 코드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0302	냉장수산물	0	0	-	-	-	-	-	-	0	0	-	-
0303	냉동수산물	98,846	233,521.7	1,005	3,244.7	19	24.2	-	-	98,865	233,545.9	1,005	3,244.7
03031	연어	11,304	48,018	-	-	0	0	-	-	11,304	48,018	-	-
030331	광어	541	4,466.6	-	-	-	-	-	-	541	4,466.6	-	-
030332	가자미	677	600.6	-	-	0	0	-	-	677	600.6	-	-
030339	기타 넙치류	619	493.2	-	-	0	0	-	-	619	493.2	-	-
030351	청어	12,992	3,628.8	-	-	0	0	-	-	12,992	3,628.8	-	-
030363	대구	5,426	17,870.4	-	-	0	0	-	-	5,426	17,870.4	-	-
03036 70000	명태	45,483	48,269	-	-	19	24.2	-	-	45,502	48,293.2	-	-
03038 93	농어	0	0	-	-	-	-	-	-	0	0	-	-
030391	알류	3,548	97,869.6	-	-	0	0	-	-	3,548	97,869.6	-	-
030399	지느러미, 머리, 꼬리 및 기타 식용 어패류	531	986.9	-	-	-	-	-	-	531	986.9	-	-
0304	생선 필레	3,720	11,982.8	48	189	0	0	-	-	3,720	11,982.9	48	189

0305	훈제 생선, 생선 가루	0.2	1.9	46	274	-	-	-	-	0.2	1.9	46	274
0306	갑각류	5,696	198,497.2	79	575.8	-	-	-	-	5,696	198,497.2	79	575.8
030614, 030633, 030693	게	5,244	190,837.8	-	-	-	-	-	-	5,244	190,837.8	-	-
0307	조개류	4,768	14,594.5	-	-	0	2	-	-	4,768	14,596.6	-	-
03072	가리비	271	496.4	-	-	-	-	-	-	271	496.4	-	-
03074, 03075	오징어 및 문어	4,041.4	11,028.2	82	441.9	0	0	-	-	4,041.4	11,028.2	82	441.9
0308	수생 무척추 동물*	1,667	4,167.9	-	-	-	-	-	-	1,667	4,167.9	-	-
03081	해삼	487	1,227.9	-	-	-	-	-	-	487	1,227.9	-	-
03082	성게	993	2,891.7	-	-	-	-	-	-	993	2,891.7	-	-

*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유지원 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참고자료

a) <https://dvtu.customs.gov.ru/statistic/2021-god/operativnaya-informacziya>(2022.2.9. 검색)